

'문화재 수리정보 DB 및 BIM 모델링 관련 최근 경향 소개' 발표문

희우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주) 박진홍 소장

문화재수리 정보는 관계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개별 수리 현장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작년부터 문화재 수리 이력을 하나의 기록물로 통합 관리하고, BIM 기반 문화재 수리 및 부재별 이력 관리 시스템(HBIM)을 구축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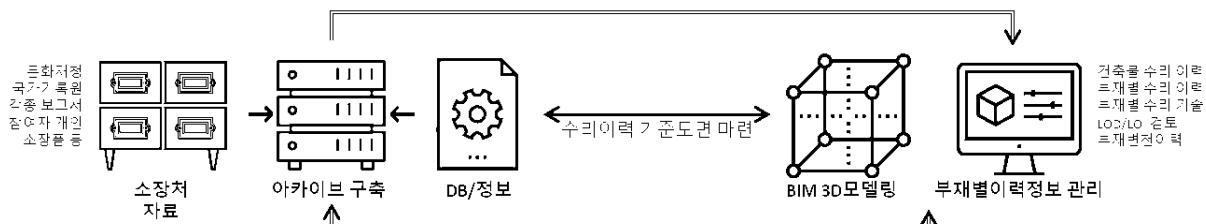
사업의 내용은 '문화재 수리이력 기록 및 정보 DB 구축', '기준도면의 작성', '문화재 수리이력 관리 통합 BIM 모델링'의 3가지 과업으로 구분됩니다. 상기 절차를 거쳐 작성된 성과물은 향후 문화재 수리현장 및 관련 기관, 학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으로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주하여 용역을 진행한 수행사 중 하나로서 그간에 진행하였던 성과물을 공유하고 최근의 경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보은군, [보은 범주사 원동보전 실측·수리 보고서], 2010

필요성	과업 목적
관련 자료의 파편화, 효율적 관리 시스템의 미비점 개선	문화재 보존 가치 확보를 위한 기록물 통합DB 구축
수리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근거 제공	BIM 기반 문화재 수리 및 부재별 이력 관리 시스템 개발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재 관련 수리 및 관리 수준의 제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문화재 유지 관리 업무 능력의 제고

과업 필요성 및 목적



과업의 절차



과업 성과물 사례(수덕사 대웅전)